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영남<sup>1</sup> · 이혜진<sup>2\*</sup>

<sup>1</sup>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sup>2</sup>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Influencing Factors on Self-Efficacy and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on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Young-Nam Park<sup>1</sup>, Hye-Jin Lee<sup>2\*</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t. of Dental Hygien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silience and the factors impacting resili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99 dental hygiene students in Chungcheong and Kyungsang from July 1 to 30, 2022 using the resilience scale, self-efficacy scal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scale.

**Results:** Factors that significantly impacted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tress coping method, self-efficacy, and grade\_dummy 2(2/3) in the order,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the explanation power was 51.0%.

**Conclusions:**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tailored educa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resilience by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such as self-efficacy, stress coping strategies.

**Key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Resilience, Self-efficacy, Stress coping strategies

Received on Aug 10, 2023. Revised on Aug 26, 2023. Accepted on Aug 29,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nlyhelena@hanmail.net)

The paper is based on the supports of academic research at Gimcheon University in 2022.

###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생 시기와는 다른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대학이라는 새롭고 변화된 환경에 접하게 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더 많아지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1]. 더불어 코로나 19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학생들의 대학 부적응을 촉진시켜 중도 탈락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치위생과 학생들 또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으로 인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치과임상 현장실습 이수과정 중 부담감등으로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부적응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이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유지하

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1990년대 이후 긍정심리학을 배경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회복력,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적응유연성이라고 하며[4], 박[5]은 적응유연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을 촉진하여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6]는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고,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였으며, 안과 김[7]은 과제 지향전략이 도전 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여 적응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는

데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들이 이에 포함되며, 소극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로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조절하려는 방법으로 거리두기, 선택적 주의 등을 통한 정서적 고통감소에 해당된다[7]. 두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7,8], 적응유연성은 유동적인 특성을 지녀 적응 유연성이 강화될 경우 문제해결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유연한 대처 능력이 길러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완충 작용을 하기도 한다[6].

자기효능감[9]은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주어진 과제를 지각된 신념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이 직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과제를 지속하게 된다. 지와 김[10]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적응유연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 진로장벽, 대학생활 적응, 진로준비 행동, 회복탄력성, 공감능력, 임상수행능력,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심리적 안녕감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1-13],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활과 치과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응유연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자료수집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충청·경상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보장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내용에 동의한 대상자만 조사하

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및 설문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은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일반적 특성)를 8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60명이고, 최종 분석은 199명을 하였다.

### 2. 연구방법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적응유연성 17문항, 스트레스 대처전략 10문항, 자기효능감 13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학점, 종교유무,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1)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임[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긍정적 평가, 삶에 대한 태도,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0.851이었다.

#### 2) 스트레스 대처전략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Lazarus와 Folkman[13]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신[4]이 번역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제 지향적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0.827이었다.

####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4]이 개발하고, 흥[1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0.684이었다.

###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24.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고려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차이는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치위생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Year	18	63	31.7
	19	70	35.1
	≥20	66	33.2
Grade	1	55	27.6
	2	66	33.2
	3	78	39.2
School work credit	<2.9	78	39.2
	3.0-4.0	84	42.2
	≥4.1	37	18.6
Religion	Yes	58	29.1
	No	141	70.9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17	8.5
	Average	100	50.3
	Satisfaction	82	41.2
Total		199	100.0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기효능감 정도는 t-검정, 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검증하였다.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18세가 31.7%, 19세가 35.1%, 20세 이상이 33.2%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은 27.6%, 2학년은 33.2%, 3학년은 39.2%였다. 학점은 2.9이하가 39.25%, 3.0-4.0 사이가 42.2%, 4.1이상이 18.6%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29.1%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0.9%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은 41.2%, 보통은 50.3%, 불만족은 8.5%였다.

#### 2.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정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5점을 기준으로 적응유연성은 3.55점이었고, 스트레스 대처전략 3.53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04점으로 나타났다.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적응유연성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적응유연성은 학년( $p=0.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높았으나,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4. 대학생의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적응유연성은 스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Minimum	Maximum	Mean±SD
Resilience	2.18	4.65	3.55±0.45
Stress coping strategies	2.20	5.00	3.53±0.51
Self-efficacy	1.85	4.38	3.04±0.39

<Table 3>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N	Resilience	t or F (p*)
Year	18	63	3.51±0.49	1.067 (0.346)
	19	70	3.52±0.48	
	≥20	66	3.61±0.38	
Grade	1	55	3.42±0.43 <sup>a</sup>	6.065 (0.003*)
	2	66	3.57±0.49 <sup>ab</sup>	
	3	78	3.69±0.40 <sup>b</sup>	
School work credit	<2.9	78	3.45±0.48	2.911 (0.057)
	3.0-4.0	84	3.58±0.47	
	≥4.1	37	3.62±0.42	
Religion	Yes	57	3.58±0.41	0.747 (0.456)
	No	156	3.53±0.47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17	3.37±0.58	2.682 (0.071)
	Average	100	3.51±0.46	
	Satisfaction	82	3.62±0.42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ffé) for three or more groups

<sup>ab</sup>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4> Correlations of resili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self-efficacy

Variables	Resili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Self-efficacy
Resilience	1		
Stress coping strategies	0.609**	1	
Self-efficacy	0.528**	0.363**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레스 대처전략(r=0.609), 자기효능감(r=0.528)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r=0.363)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5.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응유연성에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적응유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67로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었고, Tolerance는 1.0이하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69.725, p<0.001), 다중공선성 지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전략(β=0.438), 자기효능감(β=0.391), 학년\_더미2(2/3)(β=-0.175)순이었고, 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었으며, 설명력은 51.0%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0.782	0.210		3.729	0.001*		
Grade dummy2(2/3) <sup>†</sup>	-0.163	0.047	-0.175	-3.494	0.001*	0.988	1.013
Stress coping strategies	0.395	0.049	0.438	8.134	0.001*	0.852	1.173
Self-efficacy	0.472	0.065	0.391	7.301	0.001*	0.861	1.161

R=0.518, Adjusted R<sup>2</sup>=0.510, F=69.725(p<0.001), Durbin-Watson: 1.867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sup>†</sup>Dummy variable

#### IV. 고찰

대학생 시기에 겪게 되는 부적응은 학생생활 중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과 같은 대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기효능감 정도를 조사하고,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대학 생활과 초과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시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적응유연성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55점이었고, 박[5]의 연구에서는 3.54점, 이 등[11]은 3.64점, 이 등[16]은 3.70점으로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학년 구성 및 측정도구의 차이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을 포함하여 점수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와 학년을 통제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3.53점이었고, 박[5]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전략 3.37점, 소극적 대처전략 3.3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대처전략에서는 학업성적 이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소극적 대처전략은 여학생과 학년은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있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불안과 우울 수면곤란을 겪으며[4],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경우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이 저하되기도 한다[11]. 그러므로 스트레스 요인을 바로 알고 대처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학생상담센터 주관의 스트레스 검사와 대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본인의 심리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스스로 기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과제 해결에 자신감이 높고, 대인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는데[18]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3.04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민[17]의 치위생과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3.4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박과 최[2]의 간호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3.95점에서 교육 후 4.13점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은 학년에서 차이가 있었고( $p=0.003$ ),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 난이도가 높고 학습량이 많은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감과 성공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박[5]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과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등[16]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나 학업성적과 적응유연성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나 외상 경험으로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19] 학생들에게 학년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적응유연성이 향상되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적응유연성이 낮은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방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r=0.609$ ), 자기효능감( $r=0.528$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송[1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일치하였다. 박[5]의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은 생활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이 낮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기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파악하여 학과 및 학교 차원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응유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beta=0.438$ ), 자기효능감( $\beta=0.391$ )이 양적 영향을 주었으며, 학년\_더미2(2/3)( $\beta=-0.175$ )은 음적 영향을 주었으며, 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었다. 박[5]의 간호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대학생 대상으로 한 송[1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적응유연성의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19]의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적응유연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조직에 남으려는 애정의 정도인 직무근착도라 하였다. 적응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치위생과 학생이 인식하는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0].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임의표본 추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치위생과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적응유연성에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적응유연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만점에 적응유연성은 3.55점이었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 3.53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04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차이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았다.
3.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학년\_더미2(2/3)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었으며, 설명력은 51.0%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생활 및 전공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학년 학생들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학과 및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REFERENCES

1. Lee HR, Jo HI: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2):161-206, 2005.  
DOI: 10.14400/JDC.2017.15.4.339
2. Park MJ, Choi DW: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339-49, 2017.  
DOI: 10.14400/JDC.2017.15.4.339
3. Wagnild GM, Young HM: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165-178, 1993.
4. Shin JY: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4.
5. Park MH: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614-625, 2018.  
DOI: 10.5762/KAIS.2018.19.11.614
6. Roh SY: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5(2): 203-209, 2017.
7. Ahn DH, Kim JA: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Compet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1):47-67. 2007.  
DOI: 10.11111/jkana.2016.22.4.373
8. Hong D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for 'studying' type of school dropouts on their adjustment resilience,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2016.
9. Kim NM, Kim SS: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1125-1144, 2013.
10. Jee YJ, Kim KN: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2):19-27, 2016.

- DOI: 10.14257/AJMAHS.2016.12.09
11. Lee HJ, Lee HY, Kang KJ: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1):425-437, 2017.  
DOI: 10.21097/ksw.2017.02.12.1.425
  12. Lim SS: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 of resilience and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Kyoungbuk. 2013.
  13.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14. Sherer M, Maddux JE, Merca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663-671, 1982.
  15. Hong HY: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16. Lee YE, Kim EY, Park SY: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3):385-393, 2017.  
DOI: 10.4094/chnr.2017.23.3.385
  17. Min HH: Influencing factors of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al Dental Hygiene*, 19(4):525-533, 2019.  
DOI: 10.13065/jksdh.20190046
  18. Song JY: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335-345, 2017.  
DOI: 10.5762/KAIS.2017.18.12.335
  19. Ji MG: The effects of emotional burnout, resilience and job embedded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0):236-245, 2020.  
DOI: 10.22156/CS4SMB.2020.10.10.236
  20. Roh YJ, Kim JH: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justment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3):265-283, 2019.